

■ 분재란

요즘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현대화되어지고 고도의 기계문명의 시대속에 파묻혀 버렸다. 기계문명화되어지고나서 우리 인간들은 무엇인가 복잡한 생활속에서 벗어나 잠시동안이나마 마음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새나 애완동물이나 열대어를 기르거나 동양란, 화초 등을 가꾸며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눈에 띄이게 많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직장에서도 환경정리를 위해 사무실에서 화초를 가꾸어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곳도 적지 않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최근에는 분재를 취미로 하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게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분재란 단순히 화분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분재라 하면 반드시 대자연의 미적 풍경의 일각을 화분 위에 농축시켜 놓은 것 같아야만 하므로 분재는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분재의 조건은 1) 자연의 풍경미감을 느끼게 할 것 2) 가지의 뽀음과 줄기의 뽀음이 수형과 조화를 이룰 것 3) 그 식물에 맞는 시대감, 연대감을 갖출 것 등이다.

이상과 같이 3가지 사항을 두루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분재의 종류

분재는 수목을 위주로 하는 것과 초물을 위주로 하는 방법, 그리고 나무와 초물을 취합해서 꾸미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재라 하면 수목이 주체가 되는 것인 만큼 관상의 요점을 앞에 두느냐 꽃

분재



許盛烈
(부산지부 점검과)



에 두느냐 또는 열매의 결실에 두느냐를 전제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 1) 송백분재 : 흑송, 금송, 적송, 오엽송, 가문비나무, 진백, 노간죽, 삼나무, 노송 등
- 2) 잠목분재 : 단풍나무, 느티나무, 소사나무, 은행나무, 담쟁이 등

3) 화물분재 : 매화나무, 명자나무, 등나무, 동백나무, 석류나무, 왜철쭉 등

4) 실물분재 : 아기능금, 배나무, 감나무, 모과나무, 홍자단, 낙상홍 등

5) 초물분재 : 사사, 춘란 등

■ 분재 가꾸기

분재란 식물이다. 식물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잘 자랄수 있게 할수 있을까 이것을 우선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식물을 튼튼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단지 식물은 인간이나 동물처럼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여 직접 욕구를 요구할 수가 없으므로 관리하는 사람이 생각하여 적당히 만족시켜 주어야 하므로 어려운 것이다.

식물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우선 영양을 취할 수 있는 기관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식물이 영양을 취하는 것은 뿌리와 잎이므로 특히 뿌리를 튼튼하게 하여야 한다.

뿌리는 가는 뿌리와 굵은 뿌리로 되어 있으며 영양분을 직접 흡수하는 것은 가는 뿌리이다. 큰 뿌리는 영양분의 통로로서 밖에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가는 뿌리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가는 뿌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흙이 배수가 잘되고 어느 정도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뿌리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물 뿐만 아니라 산소와 온도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입자가 거친 마사토에 심는 것이 좋다.

식물의 생육은 뿌리로 부터 흡수한 수분을 가지를 통하여 잎으로 공급하고 이것을 태양의 광선에 의하여 당분으로 변화시켜 이렇게 만든 당분이 식물신체를 순환하여 식물이 점점 자라게 되므로 식물의 뿌리와 잎을 무엇보다도 튼튼하게 가꾸어야 한다.

■ 분재의 관리

가. 놓을 장소와 일광

분재를 놓아둘 이상적인 장소로서는 햇볕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양호하며 물주기 편리한 장소를 말한다. 식물에 있어서 태양광선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분재를 실내에 두고 소중히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다. 그것은 분재를 소중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대하대 시키는 것이다.

식물이 햇볕을 적당하게 받지 못하면 쇠약해서 결국은 말라 죽어 버리고 말 것이다. 그 정도로 햇볕이 중요하므로 분재를 놓는 장소를 만들 때에는 우선 일광이 좋은 곳을 생각하여야 한다.

일광을 쬐는 것도 똑 같은 평일이라도 아침에 쬐는 것과 오후에 쬐는 것과는 식물에 있어서는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아침 햇볕을 쬐는 것은 대단히 좋지만 저녁 즉 석양의 햇살은 피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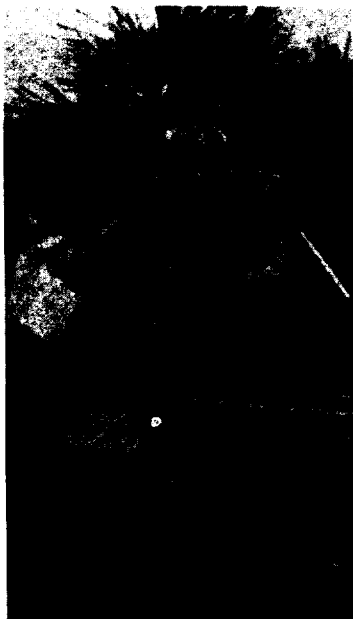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저녁 햇살은 식물을 만족하게 성장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식물의 잎 표면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식물에게 아주 나쁜 것이다. 그러므로 하루 3시간이라도 좋으니까 가능한 아침 햇살을 쬐일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나. 통풍과 반침대

어느 정도 햇볕이 쬐여지는 만족할 장소라 할지라도 통풍이 나쁜 장소이면 병이나 벌레가 발생하기 쉬우며 또한 식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것이다.

최근 도시생활에서는 전혀 정원을 가지지 못하는 아파트생활이나 집이 밀집한 지역이 많으므로 베란다, 테라스 등 통풍이 좋은 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장소는 대부분 비를 충분히 맞출 수 없으므로 물을 줄 때는 때때로 나무위에서 비오듯이 물을 주며 먼지 등이 깨끗이 씻어지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또한 가끔 화분의 방향을 바꾸어 줄 필요도 있다. 분재를 지면에 직접 놓아두게 되면 비가 오면 화분이 더러워 질 뿐만 아니라 물방울이 튀어 생육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지어는 화분 밑구멍으로 벌레가

들어가 뿌리를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절대로 지면에는 놓아 두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한 반침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반침이 높으면 식물에게는 좋은 조건이지만 매일 물을 주거나 손질하는데 불편하므로 대개 60cm~100cm 정도의 높이가 적당하다.

반침대의 밑바닥은 나무로 만드는 쪽이 식물의 생육에 더욱더 좋다. 콘크리트 등은 여름에는 더운 열기로 나쁜 영향을 주고 겨울에는 반대로 한기를 반사하여 분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 분재용토

분재용 흙의 조건으로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우선 야생식물을 생각해 보면 건조한 장소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또 습한 습지를 좋아하는 식물이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추어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 토질이라 하겠다. 식물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된다. 뿌리를 튼튼하게 자라게 하기 위한 토질의 첫번째의 조건은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고 다음은 많은 산소를 함유한 토질이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배수가 잘 되는 토질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국내에서는 주로 마사토이다. 마사토가 많이 모이는 경우 단위조직으로 되기 때문에 배수가 잘 되며 그 간격으로 공기가 들어오게 된다. 마사토는 그 뿐만 아니라 내부에 습기를 흡수하는 힘을 갖고 있어 분재용의 흙으로 사용되며 수중에 따라 마사와 여러가지 흙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혼합의 정도에 따라 배수를 조절하여 때에 따라서는 습하게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건조하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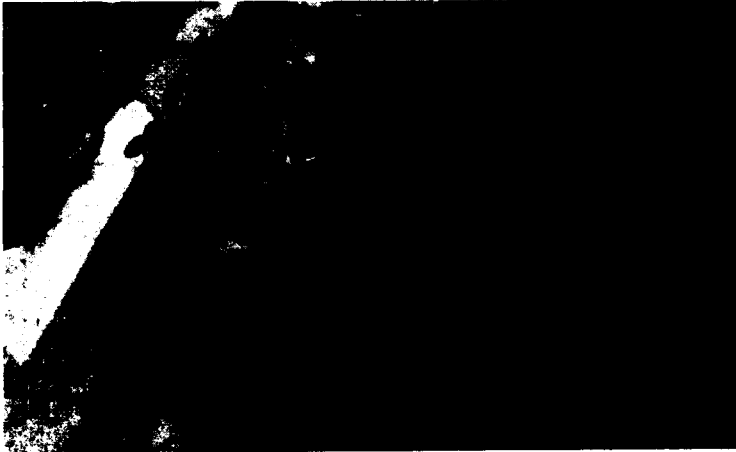
■ 물주기(灌水)

가. 관수의 목적

분재에 물을 주는 것은 흙중에 수분을 주는 것과 함께 새로운 산소를 공급하여 뿌리를 잘 자라게 하여 식물전체에 생기를 주는 역할을 한다.

나. 관수의 방법

관수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물은 빗물(雨水), 우물물, 수도물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중에 제일 적합한 것이 빗물이다.



한 것이 빗물이다.

빗물이 제일 적합한 이유는 비가 하늘에서 땅에 이룰때까지 공기와 접촉하면서 수온이 기온에 가깝게 되며 더우기 공기중에 떠다니는 여러가지 성분을 흡수하여 식물의 영양분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수분 뿐만아니라 비료분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적합한 것은 우물물이다. 우물물은 영양분을 포함한 것은 빗물과 같지만 수온, 양, 더우기 미생

물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곤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도물은 우리 인간들의 식수로 이용하기 위해 약제에 의해 소독되어 있으므로 손쉽게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주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반드시 12시간 이상을 물을 받아 두었다가 공기와 접촉하게 하고 수온이 외기온도에 가깝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물주는 요령으로서는 회수를 많이 하여 주는 것보다 한번에 많은 량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조금씩 조금씩 여러차례 주는 것은 표면만 습하게 되어지는 상태이며 내부

에는 항상 바짝 마른 상태이므로 상부는 항상 축축하여 화분의 흙 온도가 낮게 되고 뿌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토중에 산소량을 부족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을 줄때는 한번에 많은 양의 물을 주어 화분 밑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기후에 따라 2번에서 3번까지 주기도 하지만 주는 시간은 가능한한 광선이 강하지 않은 아침에 주는 편

이 좋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름의 정오에는 꼭 피해야한다.

여름 정오에 물을 주게 되면 화분내의 물이 강한 광선을 받아 온도가 지나치게 높게 되기 때문이다.

대개 화분에 물을 주는 시기는 화분의 표면이 바짝 말랐을 때이며그날 그날의 일기, 계절 또는 화분 놓는 장소, 나무의 종류, 화분의 종류, 화분의 크기, 식물의 성질 등에 따라 적당히 가감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에 물을 주는 것도 외기가 따뜻할 무렵에 주는 것이 좋으며 가능한 저녁은 피하는 것이 좋다.

저녁 늦게 앞에 물이 많으면 너무 크게 자라 분재의 자세를 망쳐 버리게 된다.

또 여름에는 정오에 앞에 물을 주는 것을 피하여야 하는데 앞에 물이 묻어있으면 물방울이 렌즈와 같은 작용을 하여 햇볕에 의해 잎이 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가능한한 앞에 물을 주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앞에 물을 줄 경우에는 외기가 따뜻한 오전중에 주어야 한다. 너무 늦어지면 식물이 얼어 죽어 버리기 때문이다.

1) 봄, 가을 : 1일 1회, 9시~10시 쯤 흠뻑 주면 충분하다.

2) 여름 : 아침 일찍 너무 덥지 않을 때 1회, 오후 광선이 약하게 시작될 무렵 3시를 지나서 1회

3) 겨울 : 2,3일 걸러서 화분이 건조한 것만 오전 10시경(가능한한 맑고 따뜻한날 택해서)

■ 비료주는 시기

분재를 튼튼하게 생육시키기 위해서는 비료가 부족해서는 안된다. 특히 분재는 작은 화분에 심어져 관

수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료분의 유실은 자연식물에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일반적으로 분재는 노목의 느낌을 주며 또한 작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료는 그다지 필요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큰 잘못이다.

4계절 푸른 송백류와 같은 것은 비료를 주지 않으면 안된다. 비료를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주지 않으면 안될뿐만 아니라 주는 시기, 주지 않는 시기, 주는 량에 따라 대단한 차이가 있다. 송백류는 년중 끊어지지 않도록 줄 필요가 있으며 화물, 실물 등은 꽃이 늦게 피거나 과일이 크게 되기때문에 다음 해에 맞추어 충분히 주지 않으면 안된다.

꽃봉오리가 나올 무렵에 시비하게 되면 오히려 꽃봉오리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또한 낙엽 수에는 낙엽이 지고나서는 거의 흡수되어 지지 않지만 가을에 들어가서 비료를 충분히 주어 두면 겨울 내 힘이 강하여 다음해 봄에는 좋은 싹눈을 바라 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식물에 요구되는 시기가 있으며 또한 화분의 대소나, 분수의 노약, 식토의 종류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

한참 자라는 어린 나무에는 비료를 많이 주어야 하며 화분도 큰것에 심어주지 않으면 줄기가 굵어지지 않고 가지도 많이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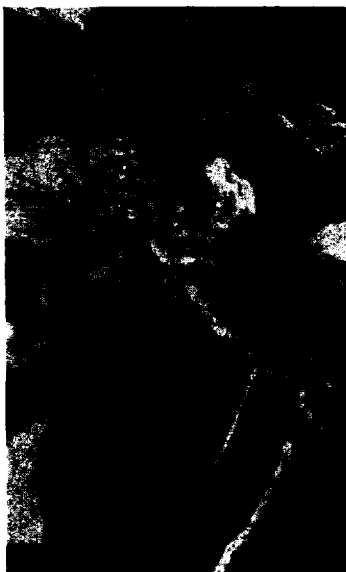
반대로 노목은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자세가 망가져 버리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식토에 의해서는 마사토가 많이 혼합된 쪽이 더 많이 필요로 한다.

■ 분갈이

분재를 보고있는 사람 대부분이 품고 있는 의문은 「그대체 이 분재는 몇년이나 지난것일까」하는 것이다.

분재는 재배기술에 따라 20년, 30년짜리 나무가 50년 이상으로 느껴지게 하는 힘을 갖게하며 또한 그렇게 갖게하는 것이 기술인 것이다.

그러나 조그마한 화분에서 20년, 30년이란 긴 세월을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여 뿌리를 갱신시켜 오랜 수명을 갖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분갈이를 하는 것은 단순히 흙을 바꾸고 화분을 큰 곳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한 크지 않게 하면서 잘 자라게 하기위한 것이다. 그 때문에 화분에 뿌리가 가득차게 되면 불필요한 것을 정리해주고 새로운 뿌리를 자라게 하여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뿌리를 정리해 주는 것이다.

보통 식물의 뿌리가 빠른 것은 1년, 늦은 것이라도 4, 5년에서 10년이면 화분내에 뿌리가 가득차 물을

주어도 스며들지 않으며 차차 약한 뿌리는 시들어 버리고 결국 식물은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 시들어 죽어버리고 만다.

영양분을 흡수하는 이러한 가는 뿌리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 분갈이의 목적이다. 그러면 분갈이는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

우선 분갈이 시기에 대해 보면 모든 식물은 활동이 왕성한 시기와 활동이 쇠약해지는 시기가 있다.

식물의 이식의 시기는 주로 식물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 직전인 봄새싹이 돌아날 무렵이 가장 적합하다.

분갈이의 방법으로는 분갈이를 하려면 먼저 발토가 건조하여 있어야 하므로 분갈이 2~3일 전에는 물을 주지 아니하고 나무를 화분에서 빼내어 분리시켜 뿌리가 많은가, 적은가, 튼튼한가, 튼튼하지 않은가등 뿌리의 모양을 잘 조사한 뒤 바깥쪽을 향하도록 하여 나무 젓가락으로 대개 식토의 2, 3할 정도 흙을 털어낸 뒤 불필요한 굵은 뿌리와 가는 뿌리를 정리하여 다시 심으면 된다.

분갈이가 끝난 것은 송백류는 바로 화분 받침대에 놓아도 좋지만 추위에 약한 것이나 잡목류는 당분간 옥내 밝은 곳에 놓고 강한 햇빛이나 바람을 피해야 한다.

관수는 당분간 서서히 충분한 양을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분갈이 후에는 충분히 원기를 찾을때까지 절대로 비료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출근 직전에 1분이라도 한번더 분재를 보살피는 마음의 여유와 좀더 많은 경험을 쌓는다면 훌륭한 분재 애호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